

“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

■ 이종윤 원로목사

성도가 어떻게 대담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토록 많은 위험과 위협을 겪으면서도 뜨거운 열정과 불타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평온한 마음을 갖고 가장 행복하게 인생을 산 사도 바울을 탄복과 기이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바울은 우리를 근심케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현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그는 시간의 그림자를 앞질러 가고 영원을 현실로 끌어들이면서 산 사람이다. 그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온 마음을 기울였다. 그는 자신을 강하고 굳세며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만든 깊고 즐거운 평안을 체험하였다. 바울처럼 우리도 항상 담대하게 사는 기술 즉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기술을 습득했으면 좋겠다.

한여름의 곤충처럼 짧은 인생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모든 것이 끝나 버린다. 우리는 오감에 의해서 인지되는 당연한 현세에만 너무 갇혀서 살고 있다. 우리의 영혼은 몸에 매여 있고 그날의 환경에 갇혀 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에 매이는데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의 충만한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면 요단강 저편에 이르기 전에 이제 여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도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대격변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산 사람이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죽음을 땅에 있는 그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으로 말한다. 멸망이나 멸절이라 하지 않고 즉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을 잃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장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자신이 잠시 거주하기 위해 그러저럭 꾸려가던 장막을 접은 정도에 비유하고 있다. 그 이후의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자기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서 죽음없이 변화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했지만 그 일은 기꺼이 주님 손에 맡기고 주안에서 죽는 복된 성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살았다. 사도는 자신이 입고서 살고 있는 몸은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것으로 보았다. 장막 깎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던 바울은 무너지기 쉬운 장막을 인생의 몸으로 비유한 것이다.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와서 쳐도 무너지는 장막처럼 미세한 유독물질이나 하찮은 것이 사람의 생명을 끝낼 수 있다. 깨어질 질그릇 같은 우리가 계속 산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이다.

이 장막이 무너지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오래도록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죽음에 시달리지 않고 벗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거주장스런 틀이 해체되면 우리는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알 속에 들어있는 병아리와 같이 껍질이 그대로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그러나 죽음이 이 껍질을 깨트린다. 부화한 햇병아리가 껍질 깨진 것을 슬퍼하지 않듯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을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집없이 떠돌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준비되어 지체함 없이 바로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 무너지 장막집이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대저택으로 발전한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곧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서 살게 될 터이니 몸을 버리는 것이 분명히 유익하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

중세기에 악인들이 죽음을 두려워 한 나머지 수도사의 옷을 구입하여 입고 죽었다는 우스꽝스런 이야기가 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우리 예수님이 마련하신 천국집으로 이던갈 터이니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담대하게 살자.

－한국장로신문 [1325호] 2012년 6월 23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astor: David John]
* Call to WorshipJohn 4:24..... Pasto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Jabez Yoo
Hymn36.....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John 4:43-54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Offering Hymn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Anthem Congregation
Sermon “Jesus Turns Water into Wine” Pastor
* Hymn 542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교육목사 윤누가	교육전도사 주원순 강남희 최근영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선 교 사 강아름주하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마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라, 사지, 에복(인도), 정상진홍성임(말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광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캐나), 김중일백순미(터키노동자), 훈쿠야 땅 땅 썬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잔다 사무 키울 랑 흐라 라베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미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포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뜨 린똌 수란족 방글라데세, 김태식 윤용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안식)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 더 큰 영광 ”

■ 학개 2:1-9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라는 질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것으로, 성도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 라고 답변합니다. 구약시대 백성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했고 끊임없이 하나님 영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그 영광의 상징중 하나가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학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성전 재건축 과정을 기록한 내용으로써 BC 520년경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1. 외형인 것에 집착하지 말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불타버린 솔로몬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과업을 느끼게 됩니다. 유대 백성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지자 학개의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아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 성전의 모습을 보며 백성들이 마땅히 기뻐하고 보람을 느껴야 했지만 오히려 새로 건축하는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학 2:3). 예전의 장엄하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며 유대 백성들의 마음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2. 제2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유대 백성들의 실망은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학 2:5). 유대 백성들을 비록 죄인이지만 제물을 통해서 피의 역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사랑할 수 있는 격려와 힘과 규례를 주시는 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성전의 규모 화려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명백한 상징이며 실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성전의 본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역동적인 현장에 있으면서도 기쁨과 확신은 없고 불안감만 팽배했습니다. 제2의 성전은 장차 성전 자체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실 성취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3. 장차 도래할 격변에 대한 예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यो. “(학 2:6). 이것은 지금의 성전의 모습은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뛰어난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으로,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란함이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2 성전은 예비적 성취로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2 성전을 바라보는 영광이 더욱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제2 성전에는 영광의 구름이 없었고, 계단의 거룩한 불씨가 없었고, 제사장 옷에 우림과 뭉뚱이 없었고, 결정적으로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영광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영광의 본질은 예수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예언된 영광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성도들 가운데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말씀의 능력과 진리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맺는 말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가는 빛줄기라도 그것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을 통해 세상을 밝히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복잡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제2 성전을 건축할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함을 안타까워했지만 학개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영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고, 드러내시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 성주진 목사 설교요약

